

법조인 인터뷰

... Interview



앤 박 LACBA(LA 카운티 변호사협회)신임 회장
“연방대법원 임신중단권 폐기로
어려움 처한 여성들에게 법률지원”



박 회장은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할 협회 사업을 구상해왔다.

박 회장은 LACBA가 설립된 이래 144년 만에 처음 탄생한 아시아계 미국인 회장이다. LACBA는 1878년 설립돼 캘리포니아 남부의 법조계를 대변해 온 변호사협회로 1만8000여 명의 변호사 회원을 두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50년 간 이어진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으면서, 텍사스와 미주리, 오클라호마 주 등에서 여성의 임신중단권과 건강권이 보호되지 못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LA 카운티 변호사협회(LACBA)는 다른 지역 변호사협회와 연계해 TF를 만들고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에게 법률적 도움을 줄 것입니다.”

박 LACBA 신임 회장은 5일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 달 취임한

그는 취임 소감으로 “영광스럽다”며 “코로나19 등과 관련한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발언으로 반아시아 혐오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LACBA와 같은 중요한 시민단체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의 리더십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민 2세로 한국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LA로 이주해 터전을 잡았다.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던 아버지 밑에서 변호사라는 꿈을 품게 된 계기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다.

박 회장은 “한국 부모들은 자녀에게 의사나 변호사가 되길 원하지 않느냐”며 “나도 처음에는 아버지와 같은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시카고에 있는 의대를 투어하면서 해부된 신체를 보다가 의사가 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등학교 시절 한국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의회에 직접 방문해 이 운동을 도우려고 했었다”며 “이를 계기로 정치적인 의식을 꾸준히 가져왔고, 결국 UCLA 로스쿨에 진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하버드대 사회학과와 UCLA 로스쿨을 졸업하고 1987년 캘리포니아주 변호사가 됐다. 현재는 폴리 앤 맨스필드(Foley & Mansfield)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며 독성물질 불법행위 소송, 환경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맡고 있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남부캘리포니아 최고 변호사로 선정됐으며, 2015년 캘리포니아변호사협회 최고상과 2009년 LACBA 패트리샤 필립스상 등을 수상한 유명 변호사이다.

Q. LACBA 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계기는.

A. 지난 30년간 LACBA에서 이사를 세 번 역임하고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협회를 이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출마했다. 임기 동안 미국 사회에서 과소대표되는 사회적 소수자를 돕는데 헌신하고, 법조계에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Q. 선거를 거쳐 LACBA 회장으로 선출되는 일은 드물다고 들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당선됐나.

A. LACBA 역사에서 선거를 통해 회장이 선출된 적은 세 번 뿐이다. LACBA 회장은 주로 공천위원회의 지명으로 결정된다. 또 1년 전에 당선자를 선출해 전임자로부터 새 회장이 권한을 원활하고 평화적으로 이어 받을 수 있게 한다. 회장직은 경쟁이 치열하지 않지만 이번에는 지명 후보인 나 외에도 회장직 지원자가 있어서 선거가 실시됐다.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가 네거티브전을 펼쳤지만, 역효과를 냈다. 선거 결과 큰 차이로 압승했다.

Q.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한국 법조계와 교류할 계획도 있다.

A. 젊은 변호사 회원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려고 한다. 협회 가입비가 연 350달러로 높은 편인데, 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건전성도 손 볼 계획이다.

‘법조 구성원의 다양화’도 중요한 사업이다. 미국 법조계는 모두에게 열려있지만, 인종 구성을 보면 과소대표된 집단이 분명히 보인다. 캘리포니아의 라틴계 인구는 40%에 육박하지만 라틴계 법조인은 7%에 불과하다. 인종에 상관없이 다양한 구성원들이 법조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격려하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얼마 전에도 협회 차원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들과 법조인의 만남을 주선했다.

한국 법조계와 교류할 계획도 물론 있다. 내년 10월 LA에서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콘퍼런스가 열리면 참가할 예정이다.

Q. 미 연방대법원의 임신중단권 폐기 판결과 관련해 미국 법조계의 반응이 궁금하다.

A. 많은 법조인이 이 상황을 매우 심각히 여긴다. 연방대법원의 구성이 보수화되면서 인구 절반의 헌법적 권리가 한순간에 빼앗겼다. 트랜스젠더 등 LGBTQ 커뮤니티의 권리 침해도 우려된다. 임신중단권 폐지에 이어 동성결혼 금지화에 대한 움직임도 보인다. 대법원의 보수화는 앞으로도 계속 논쟁이 될 것이다.

Q. 미국 법률시장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나.

A. 변호사 사칭 범죄가 심각하다. LA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자신을 변호사라고 해 의뢰인을 속이고 법률자문을 하는 일이 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이민자들이 변호사 사칭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Q. 현재 한국은 변호사 공급 증가로 법률시장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의 법률시장도 그런가.

A. 미국 법률시장은 매우 크다. 미국에서는 변호사 직역을 둘러싼 갈등이 체감되진 않는다. LACBA는 변호사 간 경쟁을 규제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LACBA의 일부인 28개의 법률실무섹션과 21개의 위원회에서 변호사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고객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Q. 미국 법조계에 진출하려는 한국인들에게 조언을 건넨다면.

A. 좋아하는 특기를 찾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라. 물론 글쓰기와 말하기, 법률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 전념한다면 미국에서 성공하기란 어렵지 않다. 미국의 로펌은 모든 분야를 다루고 있고, 미국 법조계는 많은 인력을 수용할 여력이 있다.

(출처/법률신문)